

2025년 2/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보고서

- 목 차 -

I. 조사 개요	1
II.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	2
1. 종합 실적/전망	2
2. 부문별 실적/전망	3
III. 기타 조사	4
1. 영업이익 목표 달성 여부	4
2. 사업 실적 대내외 리스크 요인	6
3.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 영향	7

2025. 4.



대전상공회의소

I. 조사 개요

1. 조사 목적

- 지역 제조업체의 해당 분기 실적과 다음 분기 경기전망을 파악하여 개별 기업의 경영계획 및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

2. 조사 개요

- 조사기간 : 2025년 2월 24일 ~ 3월 6일
- 조사대상 : 대전상공회의소 관할지역 내 업종·규모별 추출 표본업체
- 조사방법 : 표본업체에 대한 우편, 팩스 및 이메일 조사

3. 조사 내용

- 체감경기 및 경영환경 실적/전망, 대내외 리스크 요인
- 2025년 1/4분기 대비 2025년 2/4분기 투자 수준 예상 및 영향 요인
- 영업이익 목표 달성 여부 및 대내외 리스크 요인
-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 영향 및 기업의 대응 수준 파악

4. 기업경기 실사지수(BSI; Business Survey Index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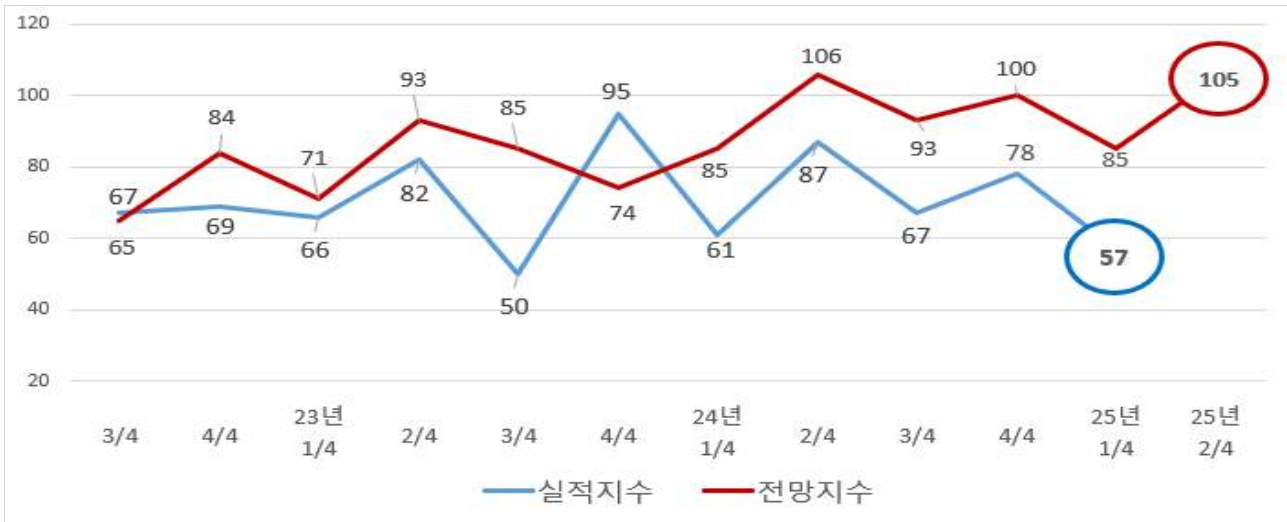
- 조사 대상 기업의 실적과 전망을 전분기와 대비해 ‘호전’, ‘불변’, ‘악화’ 등으로 표시하게 한 후, 이를 지수화함
- 기업경기실사지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작성

$$\begin{aligned} * \text{기업경기실사지수} &= \frac{\text{긍정적 응답업체 수} - \text{부정적 응답업체 수}}{\text{전체 응답업체 수}} \times 100 + 100 \\ (0 \leq \text{BSI} \leq 200) \end{aligned}$$

- ※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는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~200 사이로 표시되며, 100 이상의 경우 해당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의 경우 그 반대를 나타냄

II.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

1. 종합 실적/전망



(BSI 기준 : 100, 전 분기 대비)

분 기	'22년		'23년				'24년				'25년	
	3/4	4/4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	1/4	2/4
실적지수	67	69	66	82	50	95	61	87	67	78	57	-
전망지수	65	84	71	93	85	74	85	106	93	100	85	10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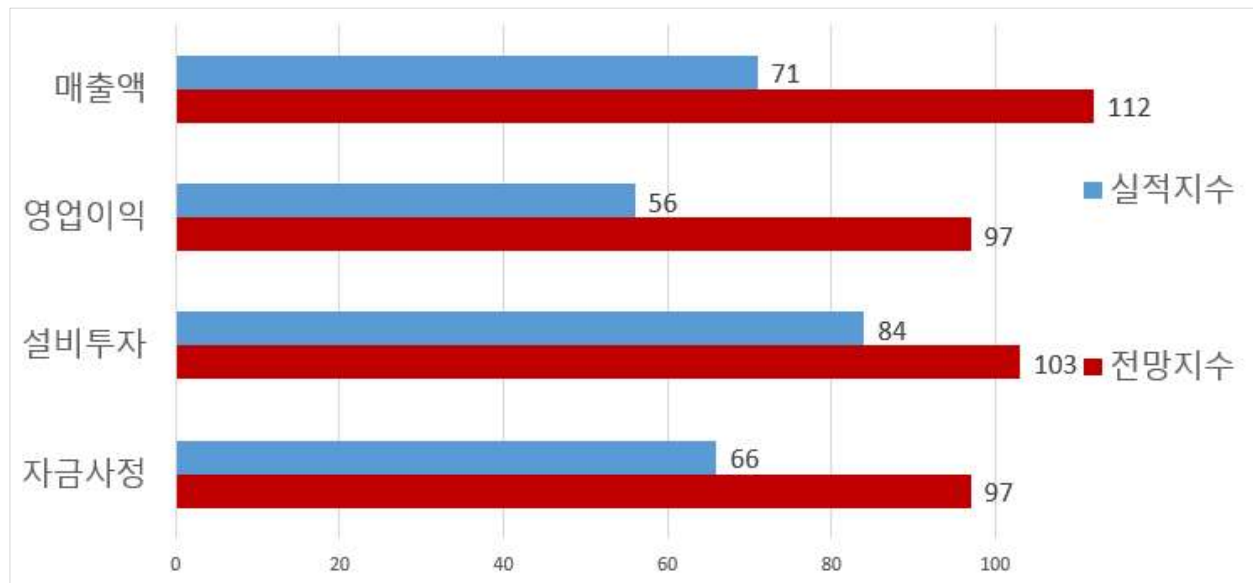
■ 2025년 2/4분기 기업경기 전망지수(BSI; Business Survey Index) : '105'

- 2025년 1/4분기 전망지수(85) 대비 20p 상승한 105를 기록하며, 전 분기 대비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됨
 - 고환율, 내수 부진 등 부담 요인이 지속되었으나,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불확실성 완화, 원자재 가격 안정 등 일부 긍정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.
 - 전반적으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대되며 전망지수가 기준치를 상회함.

■ 2025년 1/4분기 기업경기 실적지수 : '57'

- 2024년 4/4분기 실적지수(78) 대비 21p 하락한 57을 기록하며, 202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.
 - 내수 부진 장기화, 고금리 지속, 기업 비용 부담 증가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실적 악화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됨.
 - 실적 항목 전반에서 부진이 확인되며, 일부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위축 체감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됨.

2. 부문별 실적/전망



(BSI 기준 : 100, 전 분기 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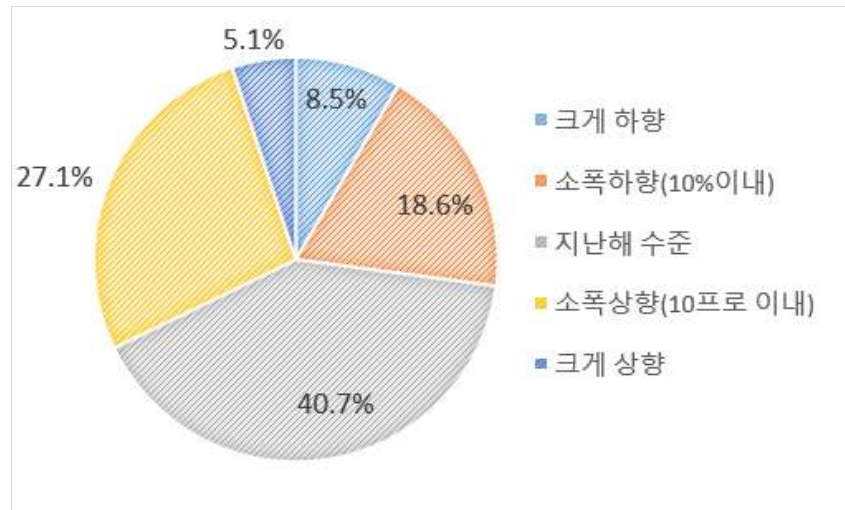
부 문	매출액	영업이익	설비투자	자금사정
실적지수	71	56	84	66
전망지수	112	97	103	97

- 2025년 1/4분기 부문별 실적지수 집계 결과, ‘매출액(71)’, ‘영업이익(56)’, ‘설비투자(84)’, ‘자금사정(66)’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(100)를 하회하며, 전반적인 경기 체감이 부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조사됨.
- 특히, ‘영업이익’과 ‘자금사정’ 항목은 각각 56, 66으로 직전 분기 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실적 부진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됨.
- 반면, 2025년 2/4분기 부문별 전망지수는 ‘매출액(112)’, ‘영업이익(97)’, ‘설비투자(103)’, ‘자금사정(97)’로 모든 항목이 전분기 대비 상승했으며, 특히 매출·설비투자 전망은 기대감이 뚜렷한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남.

Ⅲ. 기타 조사

1. 경영실적 목표 달성 여부 및 대내외 리스크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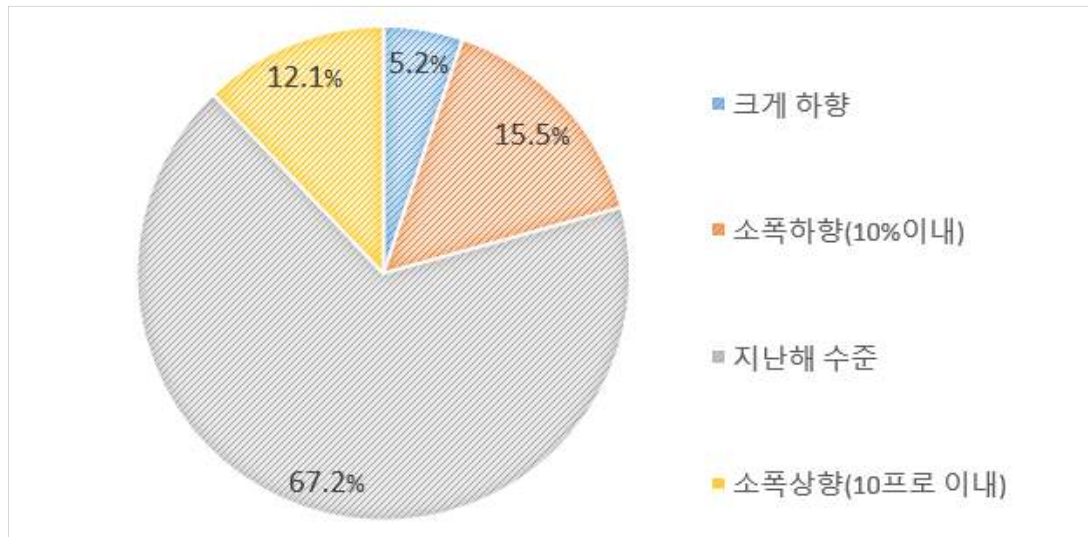
(1) 영업이익 목표치 달성 여부



구분	비중(%)
크게 하향	8.5
소폭하향(10%이내)	18.6
지난해 수준	40.7
소폭상향(10% 이내)	27.1
크게 상향	5.1

- 영업이익 목표 달성 여부 조사 결과, ‘지난해 수준’ 응답이 40.7%로 가장 높았으며, ‘소폭 상향’(27.1%), ‘소폭 하향’(18.6%) 순으로 나타났다.
- 전체적으로 ‘지난해 수준’ 또는 ‘소폭 상향’ 응답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, 기업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를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.
- 반면, ‘크게 하향’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, 전반적인 수익성 전망은 직전 분기에 비해 다소 안정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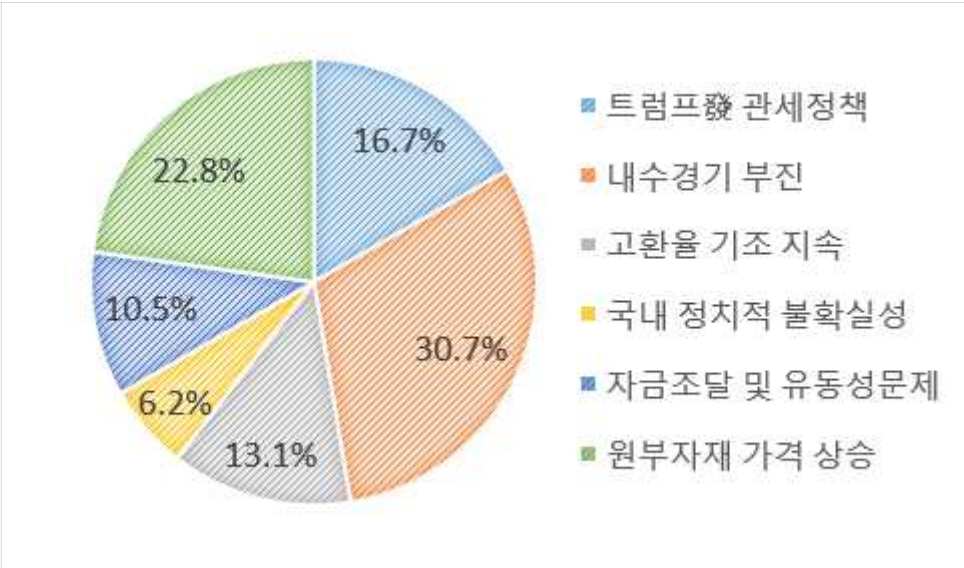
(2) 투자실적 목표치 달성 여부



구분	비중(%)
크게 하향	5.2
소폭하향(10%이내)	15.5
지난해 수준	67.2
소폭상향(10프로 이내)	12.1
크게 상향	0.0

- 2025년 2/4분기 투자실적 목표 달성 여부 조사 결과, '지난해 수준(67.2%)'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, 그 뒤를 이어 '소폭 하향(15.5%)', '소폭 상향(12.1%)', '크게 하향(5.2%)' 순으로 나타났다. '크게 상향' 응답은 조사되지 않았다.
- 전반적으로 투자 실적이 전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인식이 우세한 가운데, 상향 응답(12.1%)과 하향 응답(20.7%) 간의 분포는 다소 보수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.
- 특히 '지난해 수준' 응답 비중이 60%를 상회하며, 기업들이 투자 여건 개선보다는 현상 유지 기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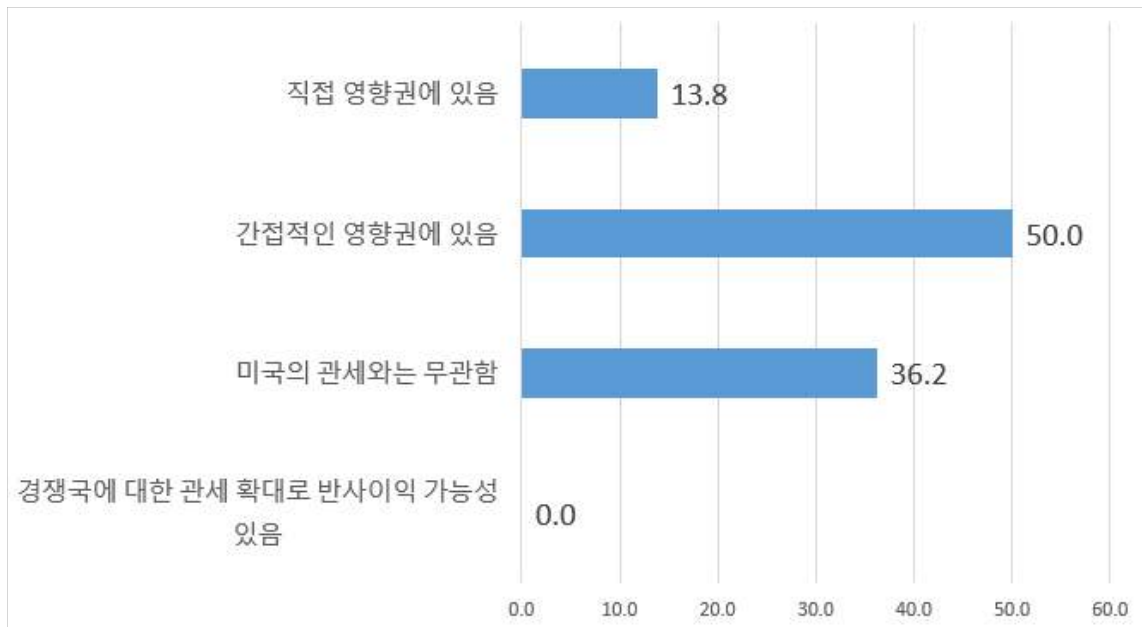
2. 상반기 사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리스크 요인(복수응답)



구분	비중(%)
트럼프발 관세정책	16.5
내수경기 부진	30.4
고환율 기조 지속	13.0
국내 정치적 불확실성	6.1
자금조달 및 유동성문제	10.4
원부자재 가격 상승	22.6
파업 등 노사	-
기타	0.9

- 2025년 2/4분기 상반기 사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, ‘내수경기 부진(30.4%)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.
- 그 뒤를 이어 ‘원부자재 가격 상승(22.6%)’, ‘트럼프발 관세정책(16.5%)’, ‘고환율 기조 지속(13.0%)’, ‘자금조달 및 유동성문제(10.4%)’, ‘국내 정치적 불확실성(6.1%)’ 순으로 나타났다.
- 전반적으로 수요 부진과 비용 상승 등 내외부 복합 요인이 기업의 투자 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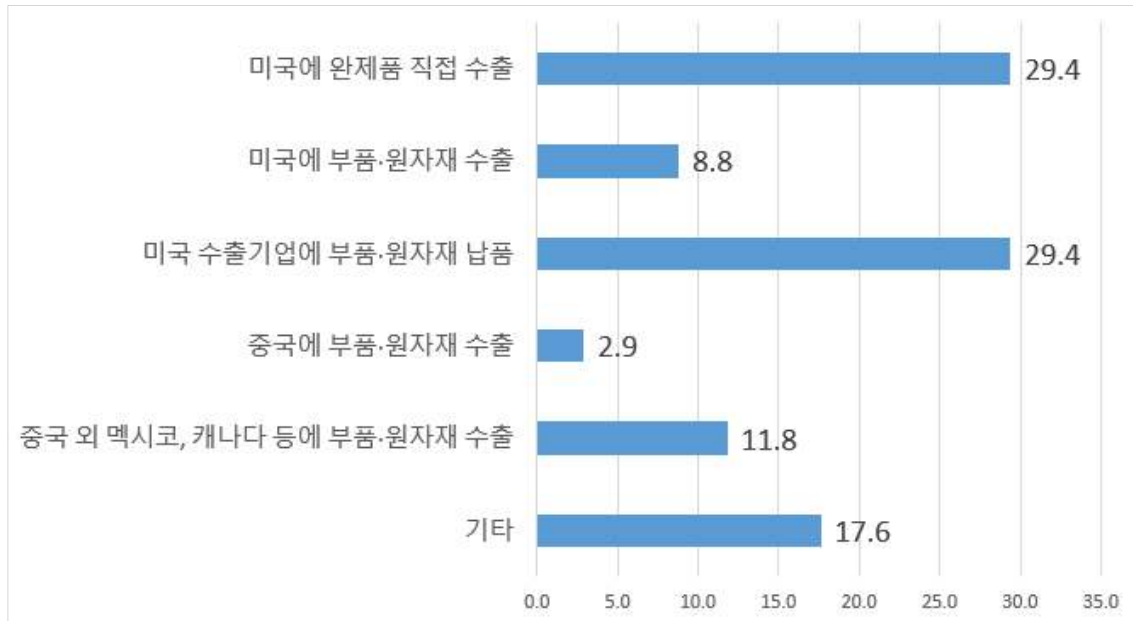
3. 미국 관세 영향권 포함 여부



구분	비중(%)
직접 영향권에 있음	13.8
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음	50.0
미국의 관세와는 무관함	36.2
경쟁국에 대한 관세 확대에 반사이익 가능성 있음	0.0

- 2025년 2/4분기 관세 영향 관련 조사 결과, 응답 기업의 50.0%가 ‘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다’고 응답하였으며, ‘미국의 관세와는 무관하다’는 응답은 36.2%, ‘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’는 응답은 13.8%로 집계되었다.
- 응답의 과반이 간접적인 영향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, 직접적인 수출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공급망, 원자재 조달 등 간접 경로를 통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.
- ‘직접 영향권’ 응답은 소수에 그쳤으며, ‘경쟁국에 대한 관세 확대에 따른 반사이익’ 가능성을 응답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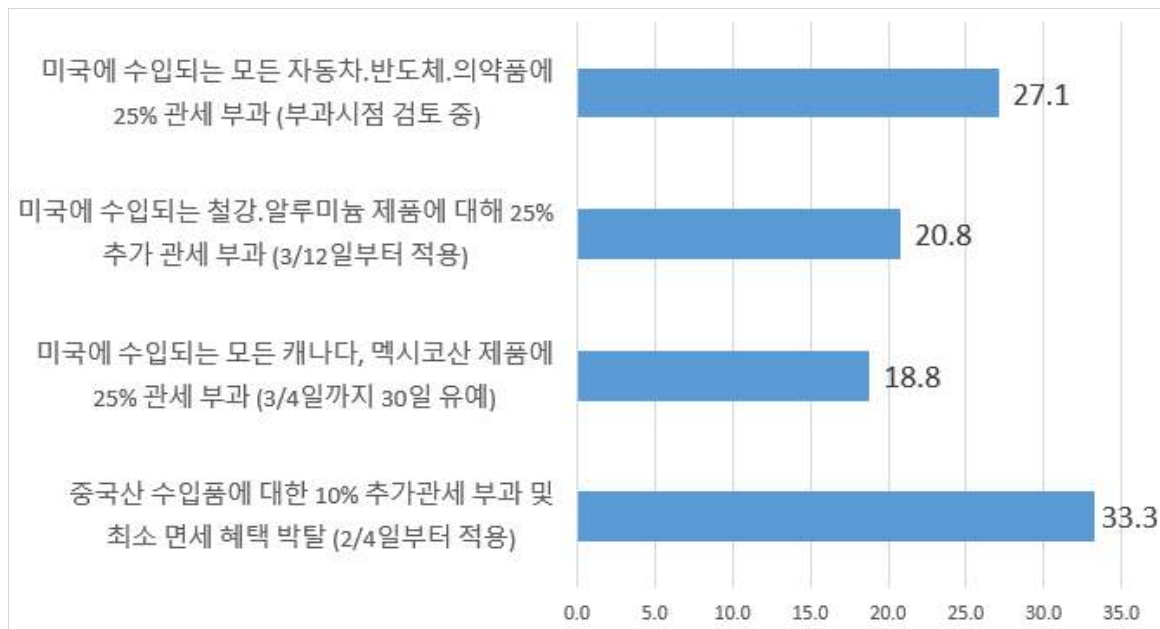
4. 미국 관세 영향권 유형



구분	비중(%)
미국에 완제품 직접 수출	29.4
미국에 부품·원자재 수출	8.8
미국 수출기업에 부품·원자재 납품	29.4
중국에 부품·원자재 수출	2.9
중국 외 멕시코, 캐나다 등에 부품·원자재 수출	11.8
기타	17.6

- 2025년 2/4분기 조사 결과, 관세 영향 유형으로는 ‘미국에 완제품 직접 수출’(29.4%) 및 ‘미국 수출기업에 부품·원자재 납품’(29.4%)이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‘중국 외 멕시코, 캐나다 등에 부품·원자재 수출’(11.8%), ‘미국에 부품·원자재 수출’(8.8%), ‘중국에 부품·원자재 수출’(2.9%) 순으로 나타났다.
- 응답 기업의 상당수는 미국에 대한 직접 수출뿐 아니라 우회 수출이나 간접 납품을 통해 관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
- ‘기타’ 응답(17.6%)에는 ‘그 외 국가 수출’, ‘동남아 완제품 수출’, ‘미국 외 지역 대응’ 등이 포함되어 관세 영향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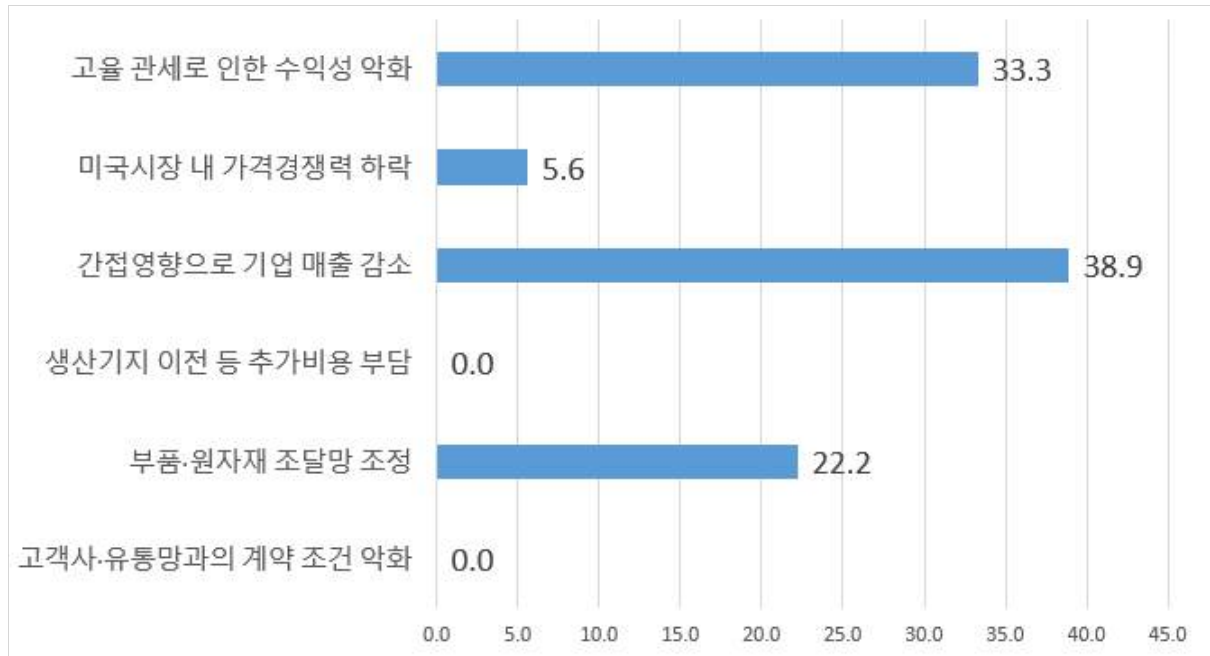
5. 현재까지 발표된 관세정책 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(복수응답)



구분	비중(%)
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·반도체·의약품에 25% 관세 부과 (부과시점 검토 중)	27.1
미국에 수입되는 철강·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% 추가 관세 부과 (3/12일부터 적용)	20.8
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캐나다, 멕시코산 제품에 25% 관세 부과 (3/4일까지 30일 유예)	18.8
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% 추가관세 부과 및 최소 면세 혜택 박탈 (2/4일부터 적용)	33.3

- 2025년 2/4분기 관세정책별 영향 예상 항목(복수응답) 조사에서 ‘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% 추가 관세 및 면세 혜택 제외’가 33.3%로 가장 높았으며, ‘자동차·반도체·의약품 대상 25% 관세(부과시점 검토 중)’ 27.1%, ‘철강·알루미늄 추가 관세(3.12 시행)’ 20.8%, ‘캐나다·멕시코산 제품 관세 부과(3.4~30일 유예)’ 18.8%로 나타났다.
- 전체 응답 분포는 중국 관련 조치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인식되고 있으며, 미국 내 보복성 관세 조치와 특정국가 대상 규제도 일정 수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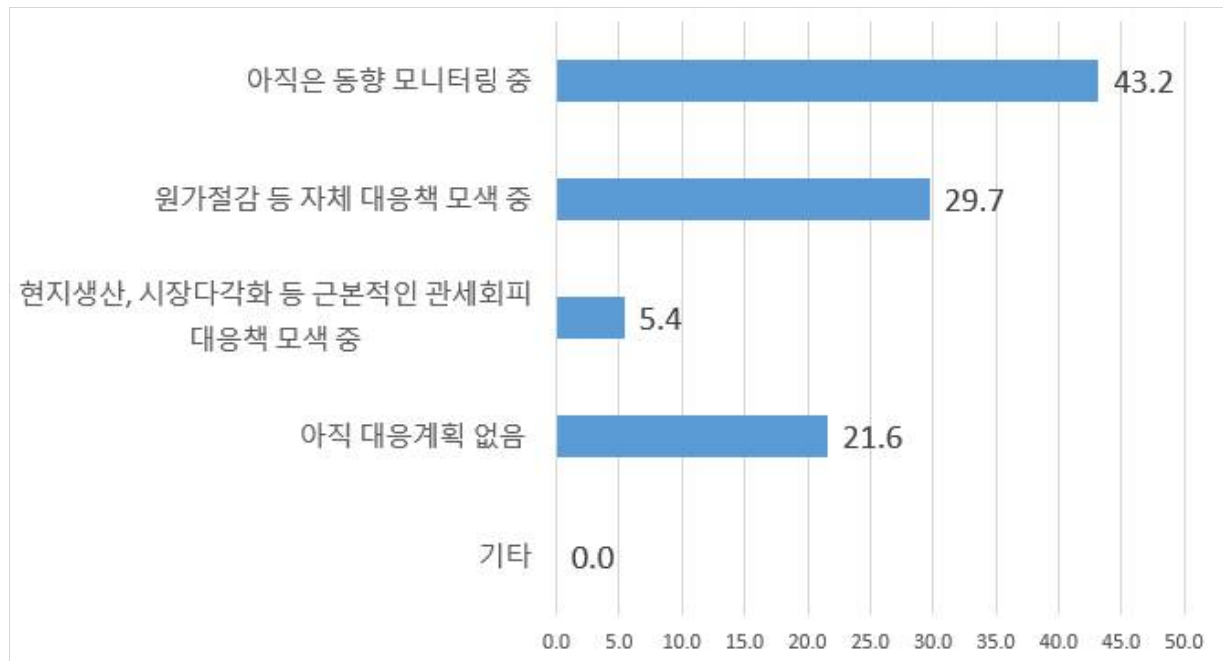
6. 미국 관세정책이 구체화 될 경우 우려되는 부분



구분	비중(%)
고율 관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	33.3
미국시장 내 가격경쟁력 하락	5.6
간접영향으로 기업 매출 감소	38.9
생산기지 이전 등 추가비용 부담	0.0
부품 · 원자재 조달망 조정	22.2
고객사 · 유통망과의 계약 조건 악화	0.0

- 2025년 2/4분기 관세정책 구체화에 따른 우려 요소로는 ‘간접영향으로 기업 매출 감소’가 38.9%로 가장 높았으며, ‘고율 관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’ 33.3%, ‘부품·원자재 조달망 조정’ 22.2%, ‘미국시장 내 가격경쟁력 하락’ 5.6% 순으로 나타났다.
- 응답은 관세가 직접적인 비용 상승 외에도, 매출 축소와 수익성 악화 등 전반적인 경영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.

7. 미국 관세정책이 구체화 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 수준



구분	비중(%)
아직은 동향 모니터링 중	43.2
원가절감 등 자체 대응책 모색 중	29.7
현지생산, 시장다각화 등 근본적인 관세회피 대응책 모색 중	5.4
아직 대응계획 없음	21.6

○ 2025년 2/4분기 관세정책 구체화에 대한 대응 수준을 묻는 조사에서 ‘아직은 동향 모니터링 중’이라는 응답이 43.2%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. ‘원가절감 등 자체 대응책 모색 중’은 29.7%, ‘아직 대응계획 없음’은 21.6%로 나타났으며, ‘현지생산 전환, 시장 다각화 등 근본적 회피 전략 모색 중’은 5.4%에 그쳤다.

○ 대응이 본격화되기보다는 관망 또는 초기 대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, 구조적 대응을 준비 중인 기업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.